

식민주의 사학과 유사역사학

2017. 4. 22.

하일식 *

1. 황당무계한 이야기들
2. 식민사학이라는 공격
3. 지어낸 『환단고기』, 만들어낸 ‘환국’
4. 환상적 민족주의는 위험한 것

1. 황당무계한 이야기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들이 시중에 퍼져가고 있음.

신라, 백제가 한반도가 아니라 중국 대륙에 있었다는 주장.

‘시안(西安) 피라미드’ : 피라미드 모양의 초대형 고분들이 고구려의 것이고, 2차대전 당시 미군 항공기 조종사가 발견했으나 중국이 이를 감추고 있다는 주장.

『삼국사기』 초기기록을 그대로 믿지 않거나 낙랑군의 위치를 평양으로 보는 학계의 보편적 견해를 ‘식민사학’이라 매도하는 것.

고대사 영역에는 사실 자체를 판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음. 여러 의문과 함께 서로 다른 주장이 충돌하며 논란이 생기기도 함. 다만,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사실’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확정짓기 어려울 때는 최종 판단을 보류하는 것도 지혜로운 태도.

‘광대한 영토’나 ‘영광스러운 고대사’에 끌리기 쉽지만, 막연한 환상이나 아쉬움에서 생겨난 경우가 많음. 현실에 대한 불만을 과거를 향해 표출하는 것일 수도 있음. 바람직한 역사 이해 태도라고 할 수 없음.

2. 식민사학이라는 공격

식민사학 : 일제 강점기에 식민지 지배를 위해 만들어진 이데올로기. 정체성론(停滯性論), 타율성론(他律性論),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 만선사관(滿鮮史觀) 등. 이 중 정체성론과 타율성론이 대표적 논리.

* 연세대 사학과 교수. 한국고대사학회 회장(현).

『경주역사기행』(2000), 『신라 집권관료제 연구』(2006), 『고려시대 사람들의 삶과 생각』(공저, 2007), 『한국고대사산책』(공저, 2017) 외 다수의 한국고대사 관련 논문

일제는 한국 역사가 정체되어 있고 외부의 자극이 있어야 발전한다는 주장을 펴며 식민 지배를 통해 근대화되고 있다고 선전. 한국인의 저항심을 희석시키고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한국은 일찍부터 이민족의 지배를 받았음을 강조하기도 - 고조선 멸망과 한사군 설치. 낙랑군은 한(漢)의 '식민지'였다는 것. 고대의 정복과 복속은 흔한 일이며, 근대 제국주의의 식민지와는 개념 자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용어를 사용한 것.

이 때문에 일제 강점기의 저항적 민족주의자들이 낙랑군의 위치를 압록강 이북에 비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음(신채호, 정인보 등). 이런 견해를 이어받아 낙랑군의 중심지를 평양으로 보는 학계를 식민사학의 후예라고 공격하는 것. 걸핏하면 일제를 들먹이며 공격적인 발언.

313년 낙랑군은 고구려에 흡수된 뒤, 일부 주민이 요서지방으로 망명, 교군(僑郡)으로 존속. 금주(錦州)의 낙랑군은 432년 북위(北魏)에 의해 북경 근방의 유주(幽州)로 이동. 여기에 조선현(朝鮮縣)이 설치되어 556년까지 존속 → 교군임을 생각지 않고 처음부터 이곳에 있었고, 고조선의 강역을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라 주장하는 것. 이를 부정하면 '식민사학'.

『삼국사기』 초기기록을 그대로 신뢰하지 않고 신중하게 검토하는 연구 태도도 식민사학이라 해도. 그러나 초기기록은 연도의 착오를 비롯하여 설화적 색채가 강한 것이 객관적 사실임. 이를 그대로 믿는 것은 온당한 역사 연구자의 태도가 아님.

3. 지어낸 『환단고기』, 만들어낸 '한국'

『환단고기(桓檀古記)』 : 「삼성기(三聖記)」, 「단군세기(檀君世記)」, 「북부여기(北夫餘記)」, 「태백일사(太白逸史)」라는 4개의 책이 하나로 묶인 것이라 주장. 그러나 목판본이나 필사본이 없고, 1979년에 나온 석판인쇄본(현대활자), 일본에서 나온 책밖에 없음.

『삼성기』 - 안함로의 상편 + 원동중의 하편(『안함, 노원, 동중의 착각』). 인류 출현, 환족의 등장, 배달국을 서술. 1457년(세조 3)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라 주장.

『단군세기』 - 고려 말 이암(1297~1364)이 1363년(공민왕 12)에 저술했다고 주장. 단군조선 47대에 이르는 국왕과 재위 기간 등이 나옴.

『북부여기』 - 이암과 동시대 사람인 범장(范樟)이 찬술한 것이라고 주장.

『태백일사』 - 이맥(1455~1528)이 찬술했다고 주장.

→ 관련 인물의 절반이 고성 이씨.

학계의 판단 : 20세기에 만들어진 위서(僞書).

시대착오적 지명과 표현 - 영고탑(寧古塔), 상춘(常春, 長春), 문화(文化), 남녀평권(男女平權), 세계만방(世界萬邦), 자아(自我) 등.

「단군세기」 서문 “나라는 형(形)과 같고 역사는 혼(魂)과 같은데 형이 혼을 잃고 보존될 것인가(國猶形 史猶魂 形可失魂而保乎)” → 아래 박은식의 『한국통사(韓國痛史)』 서문을

모방한 것.

옛사람이 나라는 멸망해도 역사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대개 나라는 형이고 역사는 신이다. 지금 한국의 형은 허물어졌으나 신만이 홀로 존재할 수 없을까. 이것이 통사를 짓는 까닭이다.(古人云 國可滅 史不可滅 蓋國形也 史神也 今韓之形毀矣 而神不可以獨存乎 此痛史之所以作也)

『한국통사』는 1915년 상해에서 출판, 1946년 국내에서 재출간(구하기 어려움). 1975년 『박은식전서』에 수록되어 보급.

1921년 낙양에서 연개소문의 아들 천남생의 묘지명이 발견되지 전에는 알 수 없었던 연개소문의 아버지(太祚), 할아버지(子遊), 증조부(廣)의 이름이 「태백일사」에 나옴.

→ 『환단고기』는 최소한 그 이후 또는 해방 이후에 작성된 것.

조작해낸 한국 :

사이비역사 주창자들은 『환단고기』에 입각하여 아득한 상고시대에 한국(桓國)이 있었고, 마치 중국 대륙은 물론 유라시아 대륙에 걸쳐 존재한 것처럼 묘사. 역사학의 시대로 보면 거의 신석기시대에 해당. 그런데 이 한국이란 『삼국유사』 중종 임신본에 실린 단군신화에 나오는 글자를 억지로 오독(誤讀)한 결과임.

『삼국유사』 임신본의 단군신화에 나오는 해당 구절 : “『고기(古記)』에 이르기를 ‘옛날에 환인[桓因(帝釋을 말한다)]의 서자인 환웅이 천하에 자주 뜻을 두어, 인간세상을 구하고자 하였다’. …” 임신본에는 여기서 환인(桓因)의 글꼴이 桓國으로 되어 있다. 유사역사학은 이를 근거로 한국의 존재를 주장.

일연은 환인 뒤에 “제석을 말한다(謂帝釋也)”라고 주석을 달아놓음.²⁾ 문맥상 환웅의 아버지인 천신(天神)의 이름이 환인인데도, 역사를 조작하는 이들은 이를 나라 이름으로 우기며 한국을 거대한 제국이라고 선전하고, 단국(檀國)이 뒤를 이었다고 우기고 있음.

연세대 박물관에서 2016년 초에 공개·배포한 『삼국유사』 파른본(조선 초기본)에는 이 글자가 선명하게 환인(桓因)으로 확인된다. 파른본에는 桓國에 가까운 글꼴로 판각. - 大를 흘려 쓸 때 생긴 글꼴(五體字典)이 조금 어색하고 각지게 판각된 결과, 잘못 새긴 결과[誤刻]인 셈.



2) 일연보다 조금 뒤 고려 말 이승휴도 환인을 제석으로 이해. 그가 1287년(충렬왕 13) 삼척 두타산에 은거하여 쓴 서사시인 『제왕운기』 - “옛날 누가 나라를 열고 풍운을 걷었던가. 제석의 손자 단군이다. … 1028년간 나라를 다스리니 桓因이 전한 것에 변화가 없었으랴. …”

→ 결국 사이비역사학이 억지스럽게 조작해낸 것이 ‘환국’이었던 셈. ‘파른본’의 공개와 함께 그 허구성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임.

4. 환상적 민족주의는 위험한 것

“인간이 역사를 만들어간다.” 역사 -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행위의 결과로 생성되는 미래. 과거 역사를 자신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 과거를 밝혀내고 확인하면서 해석하고 거기서 교훈과 지혜를 배우는 것.

누구도 과거를 만들 권한은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낸 고대사’에 환호하면서 자긍심을 느끼려 하면 곤란. 역사 해석은 사실에 바탕을 두어야 함. 때로는 불편한 사실 일지라도 그대로 받아들인 뒤에 성찰하며 지혜와 교훈을 얻어야.

과거에 대한 환상을 불러일으키며 ‘위대한 민족’, ‘우리는 하나’임을 무작정 강조하는 행위는 무책임하고 위험. 과거를 향한 환상은 현실의 환각제가 되기도 한다. 눈앞의 모순과 부조리를 직시하면서 개선하기보다는 현실을 외면하고 고통을 잊게 하는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

이것이 극우적 경향과 결합되면 사회적 광기를 부추겨 파국적 결과를 만들어내거나, 대외적 적대감을 고취하거나 ‘내부의 적’을 만들어 큰 희생을 빚기도 함. 역사적으로 보면 20세기 전반기에 휘몰아친 파시즘이 그런 경우에 해당.

기분 좋은 역사 이야기,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역사에만 매몰되면 곤란. 역사는 기본적으로 성찰하기 위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불편한 진실’에 더 자주 맞닥뜨리게 되는 것. ‘자랑스런 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현실’이며, 한층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미래에 대한 전망’임.

[참고문헌]

- 이문영, 2010 『만들어진 한국사』, 파란미디어
- 김한중, 2013 『역사교육으로 읽는 한국현대사』, 책과함께
- 한국역사연구회, 2016 『한국고대사산책』, 역사비평사
- 한국고대사학회, 2016 『우리시대의 한국고대사1, 2』, 주류성
- 젊은역사학자모임, 2016 『한국고대사와 사이비역사학』, 역사비평사